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7. 18.(목) 11:00 < 7.19.(금) 조간 > 배포 2024. 7. 18.(목)

울산 지역 수출·통상 애로해소 방안 모색

- 부·울·경 16개 수출지원기관으로 구성된 '부·울·경 통상진흥기관협의회' 주재
- ㈜린노알미늄, 효성-린데, 현대차 울산공장 현장 방문을 통한 업계 목소리 청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7.18.(목)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2024년 부·울·경 통상진흥기관협의회'를 울산국제컨벤션센터(UNEO)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협의회에는 부산·울산·경남지역 16개 수출지원 기관들이 참여하여, 2024년 상반기 기업지원 성과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환경·사회·투명경영(ESG) 대응방안, 신(新)시장발굴, 비관세장벽(해외인증 및 지재권)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이후,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알루미늄 소재 압출·가공·조립 부문에 경쟁력이 있는 ㈜린노알미늄을 현장 방문하여, 우리 중소 수출기업이 직면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수입규제 등 다양한 통상현안과 관련하여 기업지원을 충실히 해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효성-린데 기업이 공동 구축 중인 액화수소 플랜트와 현대차의 수소차 생산공장을 방문하며 미래 친환경에너지로써 수소경제 생태계 발전을 위한 업계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부의 적극적 정책 지원 의지도 표명하였다.

현장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정 본부장은 "최근 수출 상승세를 지속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지원기관이 총력을 다해 지역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며, "최근 고금리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물류비 상승 및 통상환경 변화로 지역 기업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기에, 정부는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여, 지역 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23년부터 지역별 FTA·통상진흥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역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해소해나가고 있으며, 향후에도 우리 기업들이 해외시장 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총괄>	자유무역협정정책관 통상협정활용과	책임자	과 장	이경민 (044-203-5760)
		담당자	사무관	신대근 (044-203-5768)
담당 부서	수소경제정책관 수소경제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범수 (044-203-3950)
		담당자	사무관	김일한 (044-203-395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